▌이베로아메리카 제13권 1호 [2011. 6] : 123～152

페론체제(1943-1955)와 '대중'의 사회적 주체의 출현

- 라클라우의 포퓰리즘 담론의 시각에서 -*

안 태 환**
(Ahn, Tae-hwan)

〈Abstract〉

The Regime of Peron(1943-1955) and the Apparition of the People as Social Subjects -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pulist Discourse of Laclau -

The long standing people's culture of Latin America based on social solidarity of the communities makes the political relations between the leader and the people very different from them of the european societies based on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At any rate, the main stream of the Populist Discourses sees the real populist political processes with the pejorative senses attributing the demagogue style of the leaders. In these sense, it is very important to re-consider the populism discourses of Ernesto Laclau who thinks that the populism is a way of interpreting the emergence of the people to establish the social demands in the context of populist real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A00003)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E-mail: tomy30@hanmail.net

politics. According to Laclau, “the populism seeks for the radical reconfiguration of the revolt of the ‘Status Quo’ and new order”. This work will confirm if this interpretation of Laclau can be applied to Peronist political regime.

Meanwhile the first group of the orthodox line of the discourses on populism including Gino Germani shows that the populism is a political movement based on the manipulation and demagogue by the charismatic leader of the irrational mass during the period in transition after the crises of the traditional oligarchy in Latin America. And another line of the main stream of discourses on populism including Cardoso and O′Donnell says that the populism is a political phenomena in a period of transition towards the modernization and the national development by means of the industrialization through the substitution of the imports and the alliance between the classes after the 1930′s.

But these principal interpretations on populism disregards that in Argentina many urban poor working class people had lived under the racist, unequal painful social relations due to the underestimation and the discrimination by the upper and the middle class with many intellectuals. But Peronism had considered them as the new social subjects with human dignities. And so we have to rethink the clientelism also with another meanings. In this sense, the theories of Ernesto Laclau on populism is very helpful to illuminate the sensitive and ambiguous meanings of Peronism. Especially Peronism makes the urban working class maintain their life styles more tended to them of the traditional communities and go towards the anti-Status Quo. That is a key of success of Peronism not only that time but until these days. And so this study will show that i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Peronist regime had made the emergence of the ‘people’ in the meaning of advancing the democracy in Argentina.

[Key Words: Liberal Modernity/ Manipulation and Demagogue/ National Development/ Clientelism/ Social Subject of the People]
[주제어: 자유주의적 근대성/ 조작과 선동/ 국가발전/ 연고주의/ 대중의 사회적 주체]

Ⅰ. 들어가는 말

포퓰리즘은 너무 애매하고 도피적이라 과학적 개념이라기보다 거의 직관적인 이데올로기적 언술에 가깝다. 어떤 경우에는 마오이즘, 나치즘, 페론이즘의 정치 현상의 공통의 궤적을 '포퓰리즘'으로 가리키기도 한다(Laclau 1977, 143). 그러므로 학자들은 포퓰리즘에 대해 "각자 자기식대로 이야기를 하고 반대 시각의 담론을 언급하는 것을 피한다. 그 결과 담론의 파편화는 학문적 발전의 핵심인 논쟁과 비판의식을 약화 시키고 있다"(Weyland 2001, 1). 과장되게 이야기한다면 연구하는 저자, 맥락, 구체적 케이스에 따라 거의 무한대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1] 이렇게 된 이유는 포퓰리즘에는 포퓰리스트적 실제의 정치현실이 있고 이에 대한 해석적, 인식론적 담론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포퓰리즘은 정치현실 분석보다는 담론 자체가 지나치게 확장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역사적, 구체적 정치현실과 괴리되어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담론만으로 실제 정

1) 필자는 포퓰리즘 담론의 이 같은 애매한 속성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포퓰리즘 담론이 새롭게 생산되는 것에 호기심을 느낀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서로 다른 각국의 특정한 정치 지형의 변화와 사회운동을 연구하는 대신에 포퓰리즘이란 공통의 렛텔을 지속적으로 붙이는 것이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가지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치현실을 해석 또는 왜곡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특히 주류적 포퓰리즘 담론은 포퓰리즘이 선동으로 대중을 조작하여 권력의 획득과 유지에만 전념한다는 담론을 유포하면서 포퓰리즘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상징적 의미화를 거두고 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해해서 포퓰리즘은 국내의 가난한 대중을 실천적으로 배려하거나 배려하는 언술을 행한다. 그럼에도 왜 포퓰리즘이 부정적 상징으로 되어있는가? 그렇게 되는 맥락은 여러 가지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필자가 보기에 포퓰리즘의 원조처럼 되어있는 페론체제의 실체 정치현실을 분석해볼 때 그 이유를 근대적 또는 유럽 중심적 대의 민주주의와 근대적 자유주의 정치의 기본적 정의와 아귀가 맞지 않는 라틴아메리카가 가지는 독특한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 그 무엇을 탐구해보려고 한다.

논의의 출발점은 라클라우의 포퓰리즘 담론의 문제의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라클라우야말로 "(근대적)정치의 이니셔티브를 재구성하고 이론적 시각에서 정치에 대한 기존의 사고를 새롭게 만들려고"(Laclau 2008a, 146)하기 때문이다. 또한 포퓰리즘 담론은 자유주의 주류 학계에서뿐만 아니라 좌파 학계로부터도 비난받기도 한다. 이에 대해 라클라우는 마르크스주의 철학자인 슬라보예 지젝을 비판하면서 '계급투쟁'과 '포퓰리즘'은 서로 다른 인식방식임을 강조하고 있다.

> 지젝은 내가(라클라우) 계급투쟁보다 포퓰리즘을 더 선호한다고 주장한다. 이 지적은 너무나 불합리한 문제제기이다. 왜냐하면 이 지적은 포퓰리즘과 계급투쟁이 실제로 존재하는 두 개의 객관적 실체라고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두 개의 축구클럽 중에서 어느 하나의 팀을 선택한다든지. 그러나 대중의 개념과 계급투쟁에 대한 고전적 마르크시즘 개념은 사회적 정체성의 구성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방식**이다(Laclau 2008b, 14 강조는 필자).

위의 인용은 좌파적 시각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정치, 사회적 변혁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매우 중요한 함축을 가진다. 지젝의 시각에서는 노동자계급은 헤게모니적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특권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 사회적 위치로 인해 선험적인 정치적 행위자가 된다고 한다. 이런 인식방식을 그대로 동일하게 포퓰리즘에도 적용하면, 지젝에게 있어 포퓰리스트적 정치적 행위자인 대중은 적의 공격이 있기 전에 선험적으로 존재한다(Laclau 2008b, 14-15). 그리하여 대중이 먼저 적을 찾아 공격, 섬멸[2]하려는 것이 사회정의를 회복하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젝은 주장한다. 그러나 라클라우의 시각은 이와 반대로 먼저 적의 공격이 있고난 후 대중의 정체성 형성의 사전조건이 된다(Laclau 2008b, 15). 필자는 라클라우의 시각에 동의하면서 페론체제의 현실적 분석을 통해 지젝과 라클라우 중 어느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는 지 살펴볼 것이다.

페론이즘은 정치운동으로서 하층 대중계급을 대표한 것인가? 아니면 부르주아와 중간계급의 이익을 대표하며 지방의 과두지배계급과 제국주의에 반대하며 도시 대중을 동원하기 위한 것(Laclau 1977, 144)인가? 페론이즘은 전통적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틀에 순응하는 것인가? 아니면 라틴아메리카의 전통적 공동체적 연대의 문화적 맥락에 맞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것인가? 그 전략이 연고주의인가? 또한 포퓰리즘을 이데올로기로 보더라도 페론이즘은 '현상유지'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전통적 기득권 계층을 거부하고 '현상유지'에 적대적(Laclau 1977, 147)인가? 페론이즘은 포퓰리즘의 원조답게 선동과 조작에 의해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2) 선험적 정치적 행위자인 대중이 먼저 적을 철저히 공격, 섬멸해야 한다는 지젝의 주장은 극좌주의적인 그의 시각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극좌주의(스탈린주의)에서는 새롭게 대중의 요구를 재 접합시키려는 시도엔 관심이 없다. 오직 적과의 폭력적이고 철저한 대결만이 정당성을 가진다(Laclau 2008b, 61-62).

위한 것인가? 아니면 오랫동안 소외되고 배제된 사회세력을 근대국가의 사회적 공공성의 영역에 포함시킨 것 인가(Laclau 2008b, 57)? 이런 질문들에 대해 본 논문에서 분석할 것이다. 연구의 기본적 도구는 라클라우의 포퓰리즘 담론의 시각으로 주류 포퓰리즘 담론이 만들어놓은 포퓰리즘의 왜곡된 상징적 의미화를 회의적으로 재구성할 것이다.

대부분의 포퓰리즘 담론은 그 시각이 위로부터 아래를 향하는 것이 문제다. 하지만, 포퓰리즘은 대중의 참여를 통해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대중의 현실적 경험(De la Torre 1992, 388)이라는 시각이 필요하다. 포퓰리즘이 이렇게 복합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으므로 포퓰리즘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선험적, 본질적 접근보다는 구체적 현실적 정치 현실의 케이스를 분석하는 맥락적 접근이 유용하다.[3)]

페론이즘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김달관(2007)은 페론이즘이 1930년대와 이후에 자유주의 정치체제와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했다고 한다. 곤살레스(Gonzales)(2007, 95)는 페론이 집권하면서 유럽식의 자유주의/사회주의 정치지형의 구성이 아니라 대중과 과두지배계급 사이에 국가가 강력한 심판자로 등장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데 라 또레(De la Torre)(1992, 413)는 페론이즘이 오랫동안 인종주의적으로 배제되어왔던 가난한 대중의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적으로 평가한다. 디 뗄라(Di Tella)(1965, Cammack 2000, 151 재인용)는 페론이즘을 민족주의, 대중 정치, 개인적 카리스마의 지도자, 도시 노동자계급을 포함하는 계급 화해, 반 '현상유지' 이데올로기로 해석한다. 게르마니(Germani)(1973, Viguera 1993, 51 재인용)는 페론이즘을 해석하면서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한 가난한 대중이 비이성적

3) 좌파적 시각에서 볼 때 라틴아메리카의 복잡한 사회적 맥락의 차별성은 자유와 평등을 위한 투쟁 즉 민주주의를 이해하는데 있어 본질주의적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Bonetto de Scandogliero and Martinez 3).

인 아노미 상태에 있어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에 의해 쉽게 조작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아니(Ianni)와 까르도주(Cardoso), 오도넬(O'Donnell)(Viguera 1993, 54 재인용)등은 페론이즘을 경제성장 또는 자본축적 모델의 기획으로 해석한다.

위의 자료들을 참조하여 본 논문에서 필자는 라클라우의 대중의 요구를 중시하는 시각을 제시하고 이 시각을 통해 자유주의적 또는 기능주의적 시각의 두 가지 포퓰리즘 담론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할 것이다. 특히 페론이즘과 '대중'의 사회적 주체의 출현의 관계를 강조할 것이다.

Ⅱ. 라클라우의 포퓰리즘 담론: 대중의 사회적 요구

합리성을 중시하는 주류 정치학에서는 포퓰리즘을 "비어있는 것, 반지식인적, 과도기적 성격"의 특정의 현상적 운동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라클라우(2005, 27-28)는 합리성의 모델을 일반화된 수사 즉 헤게모니로 확장시켜 이해함으로써 포퓰리즘이 정치적인 것의 새로운 가능성의 출현으로 즉 헤게모니의 구축의 과정으로 이해한다. 여기서 말하는 헤게모니란 어떤 부분성[4]이 보편성의 이름을 획득하게 되는 관계라고 본다(Laclau 2008b, 15). 뒷부분에서 분석이 이루어지겠지만 아르헨티나의 경우, 20세기 초의 시골에서 대도시로 이주해온 가난한 노동자들(소위 "셔츠 없는 사람들"(descamisados)로 불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대중적 요구를 제시하면서 헤게모니를 가지게 된 과정을 의미한다. 이들을 이런

4) 이때의 부분성은 총체성의 일부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등장한 새로운 부분성이 그 자체 곧 총체성인 것이다. 육화된 부분성이 접근과 이해가 불가능한 총체성을 대체한 것이다(Laclau 2008b, 20). 그러므로 아르헨티나의 페론체제 당시 가난한 노동자 대중은 그 당시의 아르헨티나의 보편성을 육화시켜 보여주는 총체성이다.

호칭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대중적 정체성을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이때의 대중은 처음부터 선험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다. 시골에서 대도시로 이주한 뒤에도 엘리트와 지식인 등 중간계급에 의한 무시와 차별적 배제에 대해 분노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접합시키면서 헤게모니를 강화시켜 나간 것이다. 헤게모니의 강화과정은 대중의 사회적 요구가 이질적 요소들과의 접합을 통해 등가적 연쇄고리와 대중을 억압한 세력과의 내부적 국경선의 존재를 만들면서 대중적 정체성이 어떤 담론으로 표현되게 만든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해 "포퓰리즘은 기존질서의 전복과 새로운 질서의 급진적 재구성을 추구하게 된다"(Laclau 2005, 221).

즉, 포퓰리즘은 지도자의 개인적 카리스마도 아니고 국가발전의 과도기적 성격도 아니고 정치적 논리로 이해할 수 있다. 정치적 논리로 이해한다는 것은 일정한 대상에 대한 사회적 포용과 배제의 논리를 의미하고 그 기준은 사회적 제도인데 그것은 사회적(대중적) 요구로부터 출발하고 사회적 변화도 마찬가지다. 이는 곧 복수의 사회적 요구를 제시하는 집단적 정치적 주체의 구성을 전제한다(Laclau 2005, 150). 그러므로 라클라우는 포퓰리즘을 비정상적인 것, 일탈적인 것, 조작과 선동으로만 보는 시각을 거부한다. 다시 말해 라클라우는 포퓰리즘을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해 이를 거부하는 총체로서 대중적-민주적 요구(interpelaciones)의 등장"(Viguera 1993, 53-54 재인용)으로 해석한다. 라클라우의 시각에 의하면 페론이즘도 기존의 소수의 과두 지배적, 차별적 이데올로기에 맞서 기층 대중이 자신의 요구를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의 맨 아래에 위치한 대중의 시각에서 바라보며 긍정적인 해방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 1930-60년대까지의 고전적 포퓰리즘(예를 들어 페론이즘)의 주요한 효과가 인종주의적 위계질서의 사회 안에서 배제된 광범한 사회적 그룹-대중-에 대해 상징적 존엄성을 찾게 한 것으로 해석된다(De

la Torre 1992, 413). 라클라우의 시각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포퓰리즘의 진행과 민주주의 과정의 진행을 병치시키는 시각이기 때문이다. 니콜라스 린치도 기존의 포퓰리즘 담론이 오직 권위주의적 연고주의적 요소들과만 연결시키고 그것이 가져오는 민주화의 과정을 무시한다고 네오 포퓰리즘을 비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민주주의 과정의 광범한 결과를 분석하는 것을 막는 이론적 진공의 기능을 오히려 네오 포퓰리즘이 맡고 있다고 한다(Lynch 2000, Gonzales 2007, 83-84 재인용).

주류적 포퓰리즘 담론은 라틴아메리카가 과두지배 모델을 극복하고 정치적으로 의회 민주주의 또는 대의 민주주의 모델과 도시화, 산업화의 경로를 따르면서 국가발전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근대성(합리성)에 기초한 경제 사회적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맥락을 포퓰리즘 체제에서 찾고 있다. 오히려 포퓰리즘 담론이 엘리트/대중의 적대적 계급관계의 대치전선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가리는 가림막 구실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은 라틴아메리카의 포퓰리즘의 실험이 1930-40년대부터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쇠락기에 이른 50년대-60년대에 전 세계의 제 3세계 국가들에 대해 국가발전주의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전파되던[5] 시기라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60-7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군부독재 정권에 의해 국가발전주의가 이데올로기로서 강하게 작동되면

5) 1949년에 미국 대통령 트루먼에 의해 발표된 취임연설이 대표적인 국가 발전담론이다. "세계인구의 절반이상이 극빈선 가까이에 살고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는 이 사람들의 고통을 완화시킬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공정하고 민주적인 거래의 개념에 기초한 발전계획이다.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열쇠이다.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열쇠는 근대적 과학과 기술의 지식의 더 많은 적용이다(Truman 1964; Escobar 2007, 17 재인용). 제3세계 국가들도 서구적 근대성과 민주주의의 경로를 통해 더 많이 생산하면 즉 자본주의의 축적모델을 따르면 자동으로 번영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를 내세운 것이다.

서 산업화에 의해 당연히 유발되는 사회적 적대 즉 계급투쟁을 억압하게 되는 기제로 작용한다. 그러면서 계급투쟁을 억압하는 국가발전주의를 포퓰리즘 담론으로 치환하기 위해 포퓰리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한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 개인의 선동과 조작의 카리스마적 스타일도 아니고 경제 사회적 맥락의 수입대체 산업화 모델의 필연성도 아니다. 더 넓은 범위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소수의 엘리트에 대항하는 대중의 출현으로 인식해야 한다.

> 강조하고 싶은 것은 라틴아메리카의 포퓰리즘의 출현이 전적으로 산업화 또는 수입대체 산업화에만 연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 큰 범위와 연결시켜야 한다. 자유주의 전성기에 (1910년대에) 농축산 수출부문의 다이나믹한 활성화 덕분에 가속화된 경제성장과 연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전통적인 과두지배 엘리트 체제에 반대하는 정치적, 조직적 의식을 가진 새로운 사회적 주체(대중)의 형성의 요소를 덧붙여야 한다. 단지 경제적 사실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Gonzales 2007, 88).

이런 의미에서 최근 라틴아메리카의 반 헤게모니적 흐름으로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여러 좌파정부들이 차례로 집권한 맥락에서 볼 때 이를 전통적인 좌, 우파의 계급투쟁의 시각보다는 포퓰리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성찰이 요구된다.

Ⅲ. 주류 포퓰리즘 담론: 개인적 카리스마의 지도자와 국가발전주의의 과도기

주류적 포퓰리즘 담론의 학자인 웨이랜드는 고전적 포퓰리즘의 원초

적 형태인 개인적 카리스마의 정치적 스타일을 최소한도의 포퓰리즘의 정의로서 중시한다(Weyland 2001). 이 같은 정의는 대의정치의 제도들을 통하지 않고 지도자가 직접 대중에게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호소하는 것을 의미한다(Cammack 2000, 149). 바로 이 같은 포퓰리즘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인식에서 우리는 주류 학자들이 라틴아메리카식의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볼 수 도 있는 지도자-대중의 관계를 대의 민주주의의 틀을 무시한다고 해서 곧 비민주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페론[6]의 포퓰리즘은 단순히 수사만이 아니라 그 당시 아르헨티나 노동자 대중에게 현실적, 구체적 이익을 주었고 이들 대중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이에 비해 메넴의 포퓰리즘은 페론이즘의 고유한 연고주의(Clientelismo)[7]와 수사를 활용하였지만 실제로 대중에게는 가난과 실업을 가중시켰기 때문에 이 둘의 포퓰리즘의 최소의 공통점은 지도자 개인의 카리스마적 정치 스타일밖에 없다(Weyland 2001, 6-7)는 웨이랜드의 주장은 상당히 교묘하게 페론이즘을 왜곡하는 셈이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담론이 포퓰리즘의 구체적 정치현상과 담론의 괴리를 증폭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개인적 카리스마의 정치 스타일은 포퓰리즘 현상의 하나의 작은 부분인데 이를 통해 현실적으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페론과 메넴이라는 두 정치가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버림으로써

6) 페론은 아르헨티나 역사상 유일하게 세 번이나 대통령직을 수행한 정치인이다. 첫 번째는 1946-1952년, 두 번째는 1952-1958년이었는데 1955년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후 18년간 망명 이후 세 번째로 1973-1977년의 임기를 가졌으나 1974년 사망하게 된다.

7) 연고주의는 반민주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정치적 실천으로 이해된다. 이를 통해 과두적 지배의 기본 축으로 작동하여 전통적 정치 엘리트의 지배를 강화하고 항구화시킨다(Hagopian 1992, Auyero 2002, 36 재인용). 연고주의는 일명 후견주의로도 불린다. 연고주의는 정치세력이 유권자의 투표지지에 대해 개인적, 물질적 보상을 통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의 가난한 대중의 시각에서 볼 때 연고주의는 그들을 정치세력이 인정해주고 그들도 시민이라는 귀속감을 가지게 하는 긍정적 가치를 지닌다(De la Torre 1992, 407).

전자가 보인 대중의 요구의 수용이라는 민주적 요소를 제거하고 후자의 선동적 카리스마의 정치 스타일을 마치 전자의 정체성의 모든 것 인양 왜곡하기 때문이다. 또한 웨이랜드의 이 같은 주장은 얼핏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만 또 하나의 치명적 결함은 포퓰리즘을 대중의 시각이 아닌 엘리트 지도자에 초점을 맞추어 페론체제의 정치현실의 객관적 분석과 해석에 선험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데 있다. 또한 포퓰리즘을 극복해야 할 병리적 현상(Canovan 1999, 2)으로 보게끔 유도하게 된다. 정상/병리의 이분법적 시각은 미셸 푸코가 정확히 인식했듯이 위계 서열적 또는 식민적 시각의 폭력적 인종주의가 근대성의 핵심임을 드러낸다. 근대적 자유주의 정치 행태/포퓰리즘을 마치 정상/병리의 이분법으로 대체시키는 것이다. 이런 시각의 인식론에서는 대중의 합리성이 아예 부재하다고 본다. 여성, 광인, 야만인, 아이들, 알콜 중독자들을 타자로 인식하는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Marchart 2006, 39). 본 논문의 문제의식도 여기에 있다. 즉, 포퓰리즘을 부르주아 엘리트와 중간계급이 대중을 도구화시키고 그들의 의식을 조작한 것(Gonzales 2007, 79)이라는 주류적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고 대중 스스로에 의한 사회적, 정치적 행위자의 출현을 중시하는 다른 시각을 드러낼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똑같은 라틴아메리카의 포퓰리스트를 두고도 서로 이율배반적인 해석을 주류 학계에서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기준이 구체적인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적 맥락을 떠나 사후적으로 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시각에서 왔다 갔다 한다.

>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위한 유일한 선택으로 광범한 신자유주의적 경제 개혁 조치들의 승인과 함께, 2차 대전 후의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스트들은 역사적 맥락에서 빼내진 채 오직 경제적 자살로 향하는 무모하고 낭비적 인물로 악마화되었다(Dornbusch and

Edwards, 1991, Cammack, 2000, 150 재인용). 한편 이전의 포퓰리즘 담론들은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 정치를 정치발전의 정통이론을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잘못 해석했다(Kenworthy, 1973; Roxborough, 1984; Cammack 2000, 150 재인용).

또 다른 주류적 학자들은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 정치를 근대성이 진전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의 현상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데이비드 앱터는 포퓰리즘은 주로 반민주적이라기보다는 전 민주적이라고 했다(Laclau 1977, 143 재인용). 그러나 이 같은 시각은 늘 라틴아메리카를 근대성의 발전의 도중에 있는 것으로 따라서 라틴아메리카 정치를 항상 포퓰리즘으로 호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럽 중심적, 위계 서열적 시각을 드러낸다. 라틴아메리카의 사회는 20세기 초반까지도 극소수의 과두지배계급(Oligarquía) 또는 대지주 세력과 가톨릭교회 외에 부르주아와 중간계급이 미약하고 대부분이 문맹의 가난한 대중[8]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므로 라틴아메리카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과두 엘리트/대중의 대치전선이다(Laclau 1977; De la Torre 1992, 386 재인용).[9] 중요한 것은 식민시대 이후의 과두지배체제의 성격을 무엇으로 인식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자유주의적 주류학자들은 이 체제를 자본주의 전단계의 봉건체제로 인식한다. 그러나 종속 이론가들과 근대성/(탈)식민성 담론 학자들은 이 체제도 자본주의체제로 인식한다.[10] 식민시대 부

8) 교양 있는 엘리트와 일반대중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심연이 바로 중남미 문제의 핵심이다. 그 문제의 기원은 스페인 정복시기에 주조된 사회적 모델에서부터 시작된다. 19세기 중반에 중남미 대중의 80%이상이 문맹이었다(Franco 1983, 18).

9)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식민지시대부터 시작하여 1920년대까지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소수의 특권적 과두지배계급과 대다수의 가난한 대중으로 이루어진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외형적으로는 의회민주주의의 외피를 입고 있었지만 유럽과 같은 중간계급과 부르주아가 형성되어 있지 못했다. 따라서, 우파건 좌파건 즉, 자유주의자이건 사회주의자이건 중간계급의 엘리트 지식인들과 가난한 일반대중과의 거리는 너무나 멀었다.

터 시작된 과두지배체제는 자본주의의 세계체제 안에서 유럽 등 중심부로의 농산물과 광산물의 일방적 수출의 왜곡된 체제였다.[11] 1930년대부터[12] 1960년대까지 근대 국민(민족)국가, 의회 민주주의의 본격적인 형성과 발전의 전 단계 전략으로 대중동원이 실행된 것이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기능주의적 시각의 고전적 포퓰리즘 담론이다. 대표적인 예가 페론이즘이다. 페론이즘이란 현실적으로 가동되었던 페론체제(1943-1955)[13]에 대한 해석 담론이다.

첫 번째 주류적 포퓰리즘 담론은 지노 게르마니가 담론의 개척자로 포퓰리즘을 근대화의 시각에서 보고 있다. 게르마니는 리더-대중의 관계가 대의 민주주의의 가치들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 포퓰리즘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근대성으로 향하는 과도기에 나타나는 독특한 정치적 형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통적 권위주의적 과두체제가 저절로 없어

10) "라틴아메리카는 처음부터 자본주의적이었다. 식민 시대부터 세계 시장에 완전히 편입되었다. 현재의 라틴아메리카 사회의 후진성은 정확하게 이런 편입의 종속적 성격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 발전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안드레 군더 프랭크는 라틴아메리카가 처음부터 항상 자본주의였다고 주장하는 학자이다"(Laclau 1977, 15-16). 아니발 끼하노를 중심으로 한 근대성/(탈)식민성 담론의 주장이 종속이론과 다른 점은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모두 유럽중심적 위계서열을 강조하고 근대성을 강조하므로 필연적으로 식민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탈근대, 탈식민적 공동체적 연대의 사회적 비전을 제시한다(안태환 2009).

11) 세계체제에 종속되어 풍부한 농산물, 광산물의 수탈적 수출 방식으로 대부분의 대중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대농장 등의 과두지배 체제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저작은 Eduardo Galeno의 『수탈된 대지』(Las venas abiertas de America Latina, 1971, 한국어판 박광순 역, 1988, 범우사)이다.

12) 1930년이 대중이 동원되기 시작한 중요한 기점이다(Laclau 1977, 144).

13) 페론체제를 이해하는 통상적인 기준은 페론이 대통령에 취임한 1946년에서 실각한 1955년까지로 본다. 그러나 페론은 1943년의 쿠데타의 주역으로서 이 당시부터 노동 및 사회복지 청장으로 실질적 권력을 행사하였고 1944년의 부통령과 국방장관을 거쳐 1946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Smith 1969, 225). 그러므로 도시 노동자 대중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 행사를 중시할 때 그 체제를 1943년으로부터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지는 것은 아니고 권위주의 정치세력에 의해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중간계급은 도시화와 함께 성장하면서 지배세력과 일체감을 가지고 대중은 비이성적인 아노미 상태에 있으면서 개인적 카리스마의 지도자에 의해 조작되어진다(Germani 1977; Gonzales 2007, 77-78 재인용). 다시 말해, 포퓰리스트를 과두지배체제(Oligarquia)의 위기 단계에서 근대화로의 국가발전의 과도기에 '대중'을 선동하고 조작하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로 정의한다(Germani 1971; De la Torre 1992, 386 재인용). 그 스타일은 지도자가 대중에 대해 가지는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부권적" 태도 또는 라틴아메리카의 오랜 전통인 과두지배자 또는 족장(Caudillo)적 태도를 말한다. 또르꾸아토 디 텔라는 포퓰리즘은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중간계급이 미미하기 때문에 소외된 중간계급 또는 상층 계급의 일부에 의해 대중동원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한다. 그리하여 대중의 참여가 "계급적" 성격이 약하게 되고 지도자의 "정치적 스타일"이 더 중요하고 경제, 사회적 정책은 부차적이 된다. 부의 재분배도 대중 선동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Viguera 1993, 51-53 재인용). 이 시각이 주목하는 것은 대의 정치 제도를 통하지 않는 대중에 대한 지도자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카리스마의 정치적 스타일이다.[14] 곤살레스는 계급의식의 부재, 최상류층의 이데올로기와의 일치, 개인적인 리더십에의 감정적 순종 또는 굴복, 대의 정치의 부재로 정의한다(Gonzales 2007, 79-80). 자유주의적인 시각에서 볼 때 포퓰리즘을 오직 권력 획득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부정적 시각으로

14) 예를 들어 "포퓰리즘은 일반적으로 일반대중으로부터 정치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그리고 특정의 부패한 지배 엘리트들에 의한, 기능 가능한 정치적 제도를 통하지 않고 정부와 시민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 정치적 목적이 달성되는 아주 특이한 형태의 정치적 수사"이다(하상섭 2007, 22). 서병훈(2008, 45)은 포퓰리즘을 "기성질서 안에서 신분상승을 꾀하는 정치지도자가 인민의 주권회복과 이를 위한 체제개혁을 약속하며 감성 자극적인 선동 전술을 바탕으로 전개하는 정치운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보는 것이다. 그 밑의 맥락에 숨어있는 대중의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주체적 역량의 인식에 대해서는 둔감하다.

두 번째 주류적 포퓰리즘 담론은 까르도주, 오도넬[15]등이 주장하는 것으로 포퓰리즘을 과도기의 국가의 경제 발전[16]과 자본축적을 위한 수입대체 산업화의 계급 통합모델로 보고 있다. 게르마니와 마찬가지로 1930년대에서 60년대까지의 시기를 주목한다.

> 이들은 일정한 경제 성장 프로젝트 또는 "축적 모델"을 포퓰리즘과 연결시킨다. 1929년 이후의 농축산 수출모델의 위기와 정치적으로는 과두지배 국가의 위기이후 나타난 라틴아메리카의 자본주의 발전단계로 본다. 구체적 전략은 수입대체 산업화이고 경제와 사회관계에의 국가의 강한 개입과 국유화이다. 이 모델도 계급연합 또는 계급 화해를 강조한다(Viguera 1993, 54).

도시화, 산업화의 경제, 사회적 맥락에서 과두지배 체제 위기 이후에 국가의 적극적 개입의 과도기 모델을 중시한다(Murillo 2000, 138). 그러나 이들의 주장의 약점은 포퓰리즘이 30년대의 산업화 정책 이전시기에 나왔다는 점이다(Gonzales 2007, 76). 오도넬의 연구도 포퓰리즘을 산업엘리트와 도시 노동자 대중이 "필요한 단계"로서 서로 계급연합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포퓰리즘 국가는 핵심적으로 "조합주의" 국가이다. 대중을 조작과 동원의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첫 번째 담론

---

15) Octavio Ianni(1977), *Populismo y contradicciones de clase en Latinoamerica,* Mexico: Era, Fernando H. Cardoso and Enzo Faletto(1970), *Dependencia y desarrollo en America Latina*, Santiago de Chile: Flacso, Guillermo O'Donnell(1972), *Modernizacion y autoritarismo,* Buenos Aires: Paidos 참조.

16) 알랭 뚜렌도 포퓰리즘에 의해 수행된 발전모델을 중시하고 포퓰리즘의 정치 사회적 성격을 부각시킨다. 종속국가의 "외부로부터 지도되는 근대화에 대한 국민적 수준의 대응"으로 해석한다. 뚜렌은 "일정한 정부들의 선동"으로 포퓰리즘을 인식하지 않고 "대중에의 호소"와 국가 중심성을 강조한다(Viguera 1993, 56 재인용).

과 비슷하나 여기서는 경제 사회적 축적 모델을 중시하는 것이다.

Ⅳ. 페론체제와 '대중'의 사회적 주체의 출현

주류적 포퓰리즘 담론은 포퓰리즘을 수입대체 산업화라는 '자본축적' 모델의 전략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포퓰리즘이 노동자 대중에게 이익과 배려를 해주는 것도 대중의 소비의 확장을 통한 발전 프로젝트의 일부라는 것이다(Vilas 1988, Viguera 1993, 56 재인용). 그러나 페론이즘은 분명히 노동자 대중의 이익을 우선한다.[17] 그리고 산업화와 근대화를 추구하면서도 전통을 중시하고 반제국주의적, 반 근대성의 표현으로서의 시골 공동체 중심의 민족주의적 흐름은 페론체제에 와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미 1870년대부터 시작된 것이다(Smith 1969, 26-29). 즉, 오랜 시간을 두고 공동체적 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전되면서 공동체적 연대 즉 연고주의가 강한 힘을 발휘한 것이다. 그러므로 페론의 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40-50년대에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공동체적 문화적 가치들에 젖어있던 농촌으로부터 대도시로의 이주 노동자들을 정치의 중심으로 한 점에 있다. 즉, 새로운 계급(대중)의 심성과 정념의 불안함을 덜어줄 수 있는 공동체적 부권적 카리스마로 그들을 포용했다. 공동체 형태의 문화적 가치들이 도시 산업사회의 분위기에 의해 만들어진 가치들로 새롭게 대체되는 시기에 페론이즘이 나타난 것이다(Gonzales

17) 1945년 말에 소고기 포장회사 경영진들은 새로이 창설된 노동관계 위원회에서 최저임금제와 관련 협조할 것을 거부하였다. 총파업이 일어났고 정부는 파업이 합법적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냉장실에서의 노동시간을 제한할 것을 공포했다. 1946년 3월 소고기 회사들은 항복했다. 노조는 하나도 양보한 게 없었다. 그들의 유일한 의무는 앞으로의 노사 협상에서 "선한 의지"를 가지는 것으로 충분했다(Smith 1969, 239).

2007, 79). 중간계급과 지식인들은 자유주의 정당인 급진당을 지지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신봉했지만 하층계급에 대해서는 차별적, 보수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페론체제는 농촌으로부터 대도시로 몰려든 노동자 대중 소위 "셔츠 없는 사람들"(descamisados)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문화적 연속성을 보장하여 준다.

> 1943년 쿠테타 발발 후 페론은 노동 및 복지 청장으로 취임했다. 1944년부터 페론에 의해 정부의 주도권을 우파에게서 빼앗고 도시 대중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다. 1944년 부통령과 국방장관을 겸임하게 된다. 이 같은 많은 직책을 통해 군부와 도시의 하층계급 "셔츠 없는 사람들" 사이의 강력한 동맹을 주조해나간다. 그리고 1946년에는 대통령에 당선된다(Smith 1969, 225).

이들 가난한 노동자들 또는 "셔츠 없는 사람들"은 공공생활영역으로부터의 그들의 차별적 배제를 상징적으로 항의하고 있었다.

> 노동자들은 그들의 사회적 차별을 상징화하고 전달하는 제도와 기관을 공격했다. 그들의 주요 타겟은 카페, 바, 엘리트의 클럽이었고 반 페론주의적 신문사에 돌을 던졌고 학생들도 그들의 항의 타겟이었다. 특히 유복한 계급의 자식들인 학생들에게 조롱의 농담을 던진다(De la Torre 1992, 411).

이들 노동자 대중이 사회적 차별과 배제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대중'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이런 과정에서 사회적, 대중적 요구가 제기되고 기존 체제를 변혁시키는 포퓰리즘 체제 즉 페론체제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페론이라는 개인적 지도자가 카리스마로 이들을 리드했다기보다 이들 대중이 페론의 등장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또르꾸아또 디 텔라에 의하면 먼저 대중의 형성과 함께 중간계급 또는 상층계급의 일

부에 전통적 과두지배 기득권 체제에 대한 반 '현상유지'(statu quo)세력이 있을 때 개혁 또는 혁명적 상황을 위해 포퓰리즘 현상이 나타난다.

> 포퓰리즘은 선진국의 경우에 노동운동이나 또는 자유주의적 연합 운동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대중운동의 연합을 의미한다. 그 차이는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중간계급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대중이 중심이고 군부, 교회, 소외된 자본가들의 지원이 있었으므로 페론이즘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중간계급 또는 상층계급에 소수의 반 '현상유지'(statu quo)세력이 강력하게 있어야 한다(di Tella 1993; Gonzales 2007, 81-82 재인용; di Tella 1965; Viguera, 1993, 51 재인용).

1930년의 쿠테타 이후 아르헨티나의 지방의 대지주 귀족계급과 도시의 보수적 자유주의 세력이 함께 권력을 잡게 된다. 상층부와 중간계급이 가난한 대중을 소외하고 배제하는 체제였다. 그리하여 페론이 등장하기전의 이 시기(1930-43)를 "수치스런 10년"(decada infame)으로 부른다. "많은 노동자들이 개인적, 집단적으로 절망과 모욕감을 체험하던"(De la Torre 1992, 410)시기였다. 공장안의 규율은 가혹했고 실업의 고통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바로 이때에 탱고의 서사가 나오게 된다. 아르헨티나에서 지방의 대 지주 엘리트 과두귀족계급은 소고기 수출과 연관되어있었다. 다시 말해 과두 계급은 곧 자본가계급이었다. 그러나 도시의 하층계급은 경제적으로는 취약했지만 페론이 1940년대 중반 권력을 잡으면서 정치적으로는 막강함을 보여주며 포퓰리즘을 통해 이 같은 기득권 구조를 바꾸게 되었다(Smith 1969, 260).

> 1930년대 후반과 1940년대 초반에 기득권계급에 대해 마지막으로 도시 운동세력이 도전했을 때 그것은 중간계급에서가 아니라

> 하층계급으로부터 나왔다. 소비대중과 소고기 포장회사의 노동자들은 소고기 업자들에 의해 지배되어 비효율성과 함께 신뢰를 잃은 의회의 과정이 아닌 다른 무기를 찾고 있었다. 그것이 결국 파렐과 페론으로 하여금 1943년의 혁명을 통해 권력을 잡게 한 것이다(Smith 1969, 257).

1890년대와 1910년대에 걸쳐 유럽으로부터 가난한 노동자들이 아르헨티나에 대거 이민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지방으로부터 대규모 이주를 통해 가난한 도시 노동자 대중의 확장을 가져온다. 페론이즘은 마르크시즘적 계급투쟁 대신에 도시와 지방의 계급투쟁이었다.[18] 도시에는 가난한 대중, 지방에는 소수의 상류 지배계급이 포진하고 있었고 대중이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주체로 출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지방의 과두 귀족에 의해 지배되던 사회에서 도시와 지방 그리고 다양한 계급 분할로 나누어 진 권력사회로 이전되어가며 갈등이 증폭되고 있었다. 그러나 도시의 하층계급이 이들 귀족 계급에게 도전했을 때 이 공격은 사회 전체를 겨냥하고 있었다.: 정치 체제, 경제 시스템, 이데올로기, 가치관, 리더십 등 모든 면에서. 결국 도시와 지방의 계급투쟁으로 나아갔다(Smith 1969, 258).

페론은 실제로 노동자 대중에게 이익을 준다. 그러므로 노동자 대중이 페론을 지지한 것은 합리적 결정이다. 앞에서 살펴본 게르마니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페론이 단지 개인적 카리스마와 대중 선동 능력이 있어 비합리적인 노동자 대중이 지지한 것이 아니었다. 대표적인 예가 페론이 1945년 투옥되었을 때 노조에 의해 조직된 노동자 대중이 페론의 석방을 요구하는 가두시위를 벌인 것은 페론이 노동청장으로 있으면서 행한 친

18) 암묵적이든 노골적이든 서구 유럽의 산업화된 사회의 정치가 가지는 계급 지향적 성격과는 대조된다(Roxborough 1984, 9).

노동 정책 때문이었다.

> 페론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지지는 하위주체들의 행동의 합리성을 보여준다. 사회보장과 노동 입법 등의 노동자들의 요구를 이전 정부들은 들어주지 않았으나 페론은 노동청장으로 있을 당시(1943-45) 이를 들어주었다. 그 후 선거에서 페론은 이들 노동자들의 지지를 절대적으로 받게 되었다. 이들 노동자들은 그들의 단기적 이익을 챙겨주는 지도자를 지지하는 합리성을 보인 것이다(De la Torre 1992, 409).

> 1946년과 1949년 사이에 노동자들의 임금이 두 배로 올랐다. 1946년까지 도시 대중에게는 그들이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이 페론의 상승을 통해서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사회주의자들은 의회정치 관행에 깊숙이 개입했고 페론이 도시의 하층계급에게 인기가 있는 것을 분개하고 있었다. 국내 총생산 중에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1945년의 42.3%에서 1950년의 54.0%로 늘었다(Smith 1969, 240, 각주 51).

그러나 페론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단지 이익- 높은 임금, 사회보장, 유급휴가 등- 을 주기 때문에 그 대가로 페론을 지지하는 합리성에만 기초한 것도 아니다. 합리성을 넘어 인간적인 끈끈한 연대가 구축되었다. 이 끈끈한 연대는 늘 사회적으로 배제되어온 사람들이 그들을 어엿한 시민으로 인정해주는 페론체제를 진정으로 지지했기 때문이다.

> 포퓰리즘의 주요한 효과는 배제적, 인종주의적 사회 안에서 광범한 사회적 그룹에 대한 상징적 존엄성을 찾게 했다는데 있다. 페론추종세력인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한 대중은 과두지배의 "반인민"과의 투쟁을 통해 "진정한" 인민(공동체)의 담지자로 변혁되었다(De la Torre 1992, 413).

이를 단지 '연고주의' 담론으로 호명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핵심을 놓치는 결과를 낳는다. 사회적으로 가난한 대중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인종주의적 식민성을 포퓰리즘이 상당부분 깨트린 것을 놓치게 되기 때문이다.

> 중요한 것은 이들의 관계가 정치적지지 또는 표를 둘러싼 거래가 이루어지는 순간을 훨씬 넘어서는 톰슨(E. P. Thompson)이 이야기 한 대로 "생생한 인간적 경험"이라는 사실이다.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 예를 들어 평생 바다 구경 못해본 사람에게 정치적 공식행사를 통해 공짜로 바다로 여행을 가는 것은 엄청난 충격을 준다. 즉, 물질적 의미를 넘어 상징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멀리 떨어져서 외부자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거래의 행위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의 산물로 보이고 행위자들도 물질적 이익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마치 파블로프의 주체들처럼 참석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중개인들은 부패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경우가 많다. 고객들은 많은 경우 이들 중개인들을 친구로 생각한다. 정부 기관이 돕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인간적 관계'이다(Auyero 2002, 37-44).

그런데 이들 노동자 대중이 정당 활동을 통해 페론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운동을 통한 방식이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가난한 노동자 대중은 정당, 의회는 믿을 수 없고 혐오스럽기 까지 했기 때문이다. 19세기 이래의 도시(문명)/시골(야만)의 이분법적 인식이 무의식적으로 전체 사회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이다.[19] 그러므로 이들

19)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적 인식이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난 글은 아르헨티나의 도밍고 사르미엔토의 에세이인 "문명과 야만 : 환 화꾼도 끼로가의 삶"(Civilizacion y barbarie: Vida de Juan Facundo Quiroga, 1845)이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공동체적 구어문화를 대표하는 서사시는 호세 에르난데스의 "마르틴 피에로"(Martin Fierro, 1872)이다(Franco 1983, 20-23).

공동체 문화(구어문화) 지향적인 가난한 대중은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중간계급에 기초한 급진당과 좌파 지식인들을 거부했다.

> 페론이 체포되고 부통령직에서 사임하자 그의 지지자들은 격렬하게 시위를 한다. 그런데 이들은 축제적이고 가우초적이고 카니발적으로 시위를 함으로써 5월 1일 메이데이 시위를 주도하는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에 의한 전형적인 엄숙하고 질서 있는 행동방식과 날카롭게 대조 된다(De la Torre 1992, 411).

가난한 대중과 중간계급은 사회문화적 기질과 가치관이 달랐다. 페론이 이들 대중과 함께 하면서 이들 대중이 사회변혁의 행위자로 나서게 만든다. 다시 말해 그들도 시민으로 대우받고 싶었던 것이다(James 1988, De la Torre 1992, 412 재인용). 즉 이들은 부르디외가 이야기 하는 상징적 권력(폭력)에 저항했던 것이다. 그리고 페론이 바로 이들 새롭게 출현한 하층계급의 '대중'을 시민으로 대우하였고(Smith 1969, 225) 나아가서 진정한 아르헨티나의 정체성의 핵심으로 인정한 것이다(De la Torrre 1992, 403).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들 대중을 시민으로 대우하는 방식이다. 즉 아르헨티나의 전통적 공동체적 연대 예를 들어 시골 팜파스의 가우초들의 연대와 같은 방식으로 가까이 한 것이다. 페론과 이들 대중의 공동의 적은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위계서열적인 근대성의 삶의 방식이다. 아니 유럽에서 발현된 의회 민주주의의 제도적 형식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James 1988; De la Torre 1992, 403-404 재인용). 이렇게 페론체제를 인식하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포퓰리즘의 의미가 허물어진다. 페론은 위계 서열적 근대성에 젖어있는 중도좌파적 지식인과 중간계급이 지지하는 급진당과 사회주의 세력을 압도하고 라틴아메리카식의 민족주의적 근대화의 길 또는 사회적 민주주의의 길을 걸은 것으로 된다.[20] 자본주의의 속성은 필연적으로 개인주의적

이고 위계 서열적 차별성을 드러낸다면 이와 다른 자본주의 경제체제 예를 들어 가장 낮은 하층계급이 인식하는 공동체 지향적인 “윤리적 경제”(De la Torre 1992, 395)의 카테고리로 페론이즘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페론체제에서 출현한 ‘대중’이 페론이즘 현상의 핵심적 가치이다.

따라서, 페론이즘은 도시화, 산업화, 근대화의 가치관으로 공동체적 문화적 가치들을 분쇄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공동체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변혁적으로 대중의 요구를 수용하는 자주적 근대화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양면성과 모순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산업화전략을 추진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중시하는 시각에 서면 페론이즘은 부르주아 엘리트와 중간계급을 형성시키려는 성격을 지녔다. 그리고 이에 순응하도록 대중의 이익을 확보해주면서 공동체적 문화적 가치들을 통해 대중을 도구화시키고 그들의 의식을 조작한 것으로 된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페론이즘을 지나치게 관념적으로 접근한 해석이다. 오히려 산업화, 근대화를 추진하면서도 공동체적 연대의 문화적 가치들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그 한계에 이르러 페론이즘이 좌초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포퓰리즘이 크게 성공한 이유가 노동자 대중이 자신의 과거의 공동체적 삶의 방식과 단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Gonzales 2007, 79). 그러므로 페론이즘이 장기적 생명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페론이즘은 대의 민주주의의 가치와는 거리가 있는 방식으로 근대성으로 나아가는 체제였다. 문제는 페론이즘이 계급무화의 전략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산업사회의 계급 갈등의 정치지형을 제대로 구현

20) 원래 민주주의는 민중적 행위의 영역으로 간주되었으며 1789년과 1848년 사이에 유럽의 삶을 지배하던 역사적 대결들 속에서 거의 조직화되지 않고 동시에 분화되지도 않은 대중들이 가장 위대한 주인공 노릇을 한 바있다(라클라우/무페 1992, 사회변혁과 헤게모니, 터, 185).

할 수 있는 정당이 못되었다는 점이다. 대중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정당이었지만 좌파 계급정당이 아니었다. 그 한계는 두고두고 아르헨티나 정치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즉, 페론이즘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측면과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측면이 함께 있는 애매함을 가졌다.

> 포퓰리즘을 통해 예전에 배제되었던 그룹들의 정치적 출현은 라틴아메리카 민주주의에 대해 모순적인 효과를 낳는 애매성을 보인다. 투표의 확장을 통해 대중의 편입과 공공광장에서의 그들의 출현은 포퓰리즘이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 이들 대중의 행동은 이질적인 운동을 거쳐 무비판적으로 대부분 권위주의적인 카리스마적 지도자와 동일시 한다. 더구나, 이분법적 포퓰리스트 담론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두 개의 적대적인 장으로 사회를 나누게 된다. 이 같은 성격은 이 지역의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데 아주 큰 장애를 만 들게 된다(De la Torre 1992, 413-414).

분명히 페론체제는 대중의 민주적 요구를 수용하면서 민주주의를 실천하였다. 그러나 지나친 이분법적 성격이 강한 권위주의적 체제를 형성하면서 자생적인 좌파 계급정당의 출현을 막는 한계성[21]을 보인다.

---

21) 정통 페론이즘은 중산층과 노동자계급을 함께 포용하는 다 계급 또는 무계급적 성격을 가졌다. 무정부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의 다양한 좌파 정당이 미국대사관과 함께 페론이즘 정치세력에 연합했었다. 이 당시 43년은 반파시즘 전선이 형성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좌파정당의 페론이즘 합류는 그 후 아르헨티나 정치지형에서 좌파 정당을 취약하게 만든 '역사적 실수' 이었다고 평가한다(Korol 2002, 2). 60년대에도 아르헨티나의 좌파는 자유주의적 좌파와 민족주의적 좌파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아르헨티나 공산당이 대표하고 있었고 후자는 페론이스트이었다(Laclau 2009, 816).

Ⅴ. 나가는 말

포퓰리즘만이 아니라 독특한 라틴아메리카의 정치 사회적 현상들은 유럽의 자유주의적 근대성의 맥락에서만 바라보면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다. 페론이즘도 근대성을 추구하였지만 그 경로가 대의민주주의의 통로가 아닌 대중의 오랜 공동체 문화에 기초한 사회적 연대(끈끈한 구어적 연대)를 통하였기 때문에 그 괴리를 유럽의 학자들이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기존의 주류 포퓰리즘 담론은 지도자가 대의정치의 제도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대중에게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선동적으로 호소하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지도자 개인과 수많은 대중의 끈끈한 연대는 전근대적, 전 자본주의적 행태로 극복해야 할 과도기적 현상으로만 보인 것이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의 포퓰리즘은 1930년대부터 본격화되어 오늘날 21세기 초까지 지속되는 생명력을 보인다. 이런 괴리를 메울 수 있는 시각은 대중에 대한 이해와 기존의 주류적 포퓰리즘 담론의 해석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접근이다. 바로 에르네스토 라클라우의 포퓰리즘에 대한 담론이 분석적 도구로 필요한 맥락이다. 기존의 주류적 담론은 포퓰리즘을 지도자의 권력획득과 유지를 위한 대중 선동과 조작에 초점을 맞춰 포퓰리즘을 경멸적 의미로 상징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라클라우에 의하면 포퓰리즘은 마르크스주의의 계급혁명 이론과는 다른 경로로 기존의 체제유지(Status Quo)를 전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대중이 자신들의 민주적 요구를 사회적으로 연계시켜(등가화시켜) 헤게모니를 확보하게 될 경우 이 같은 대중의 요구를 수용하는 정치적 정체성의 형성을 의미한다. 대중의 요구의 등가화는 서로 이질적인 집단에까지 연계되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페론체제가 가톨릭교회, 군부, 노동자 대중등 서로 이질적인 집단의 사회적 연계성의 접합을

성공시킨 것이다. 이 경우 '대중'은 새로운 사회적 주체 또는 행위자로서 민주주의의 급진화에 기여하게 된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그 '대중'은 바로 시골에서 대규모로 대도시로 이주해온 "셔츠없는 사람들"(descamisados)로서 지배계급과 중간계급과 지식인들에 의해 무시, 차별, 배제된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사회적 공공성의 근대국가 체제로의 편입을 요구하게 되고 페론은 이를 위해 친 노동자적인 노동정책을 통해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류 담론은 포퓰리즘을 국가발전 단계의 과도기의 자본축적의 모델로서 필요한 경우에 부르주아가 대중을 지도자가 카리스마를 가지고 선동, 조작하여 계급화합을 추구한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소수의 엘리트와 대중으로 나뉘어져 차별적 배제를 오랫동안 당해온 라틴아메리카와 아르헨티나의 도시 노동자 대중은 그들의 경제적 이익과 차별적 대우에 대해 강한 거부를 요구한다. 페론이즘이 도시노동자를 어엿한 시민으로 인정하였고 진정한 아르헨티나사회의 정체성의 핵심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대중이 포퓰리즘을 통해 사회적 행위자로서 출현하며 소수의 엘리트 기득권 계급에 대항하며 그들의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공동체 지향적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페론이 바로 이 문화적 특성을 파고들어 연고주의를 통해 도시 노동자 대중의 인간으로서의 상징적 존엄성을 찾게 해준다. 그러므로 포퓰리즘을 단순히 지도자의 권력욕을 위한 선동적 수사 또는 사회경제적 맥락의 수입대체 산업화전략 또는 근대화의 과도기적 단계의 계급 화해전략으로 이해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를 가진다.

참고문헌

김달관(2007),「아르헨티나의 포퓰리즘: 페론과 메넴의 비교 사례 연구」, 국제지역연구, Vol.11, No.3, pp.97-124.

서병훈(2008),『포퓰리즘』, 책 세상.

안태환(2009),「라틴아메리카의 근대성/(탈)식민성 기획과 상호문화성의 상응성」, 라틴아메리카 연구, Vol.22, No.3, pp.95-128.

어네스토 라클라우 · 샹탈 무페(1992),『사회변혁과 헤게모니』, 김성기 외 역, 터.

에두아르도 갈레아노(1988),『수탈된 대지』, 박광순 역, 범우사.

하상섭(2007),『페론이즘의 변천과 아르헨티나 경제모델의 평가와 전망』, 지역연구 시리즈 07-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uyero, Javier(2002), "Clientelismo político en Argentina: Doble vida y Negación Colectiva", *Perfiles Latinoamericanos*, junio, No.20, Universidad Autónoma del Estado de México, pp.33-52.

Bonetto de Scandogliero, Maria Susana and Martinez, Fabiana, "Las palabras de Menem. Representaciones neoliberales en el discurso nacional populista", http://sala.clacso.edu.ar/gsd1252/cgi-bin/library?e=q-000-00, pp.1-15.

Cammack, Paul(2000), "The resurgence of populism in Latin America", *Bulletin of Latin American Research,* Vol.19, pp.149-161.

Canovan, Margaret(1999), "Trust the people! Populism and the two faces of Democracy", *Political Studies*, XLVII, pp.2-16.

De la Torre, Carlos(1992), "The Ambiguous Meanings of Latin American Populisms", *Social Research*, Vol.59, No.2, pp.385-414.

Dornbusch, R., and Edwards, S.(1991), *The macroeconomics of populism in Latin Americ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Escobar, Arturo(2007), *La invención del Tercer Mundo*, Caracas: el perro y la rana.

Franco, Jean(1983), *La Cultura Moderna en America Latina*, México : Grijalbo.

Gonzales, Osmar(2007), "Los origenes del populismo latinoamericano- una mirada diferente-", *Cuadernos del Cendes,* Vol.24, No.66, sep.-dic. 2007, Caracas: UCV, pp.75-104.

Korol, Claudia(2002), "La Izquierda Argentina y su larga marcha", *Alternativa,* No.15, Santiago : ICAL, pp.1-6.

Laclau, Ernesto(1977), *Politics and Ideology in Marxist Theory*, London: NLB.

_____(2005), *La razón populista,* Buenos Aires: Cfe.

_____(2008a), "Reseña de Debates y combates por un nuevo horizonte de la Política", *Cuadernos del CENDES*, enero-abril, año/vol.25, no.067, Universidad Central de Venezuela, Caracas, p. 146.

_____(2008b), *Debates y combates,* Buenos Aires: Cfe.

_____(2009), "Laclau en debate: Postmarxismo, Populismo, Multitud y Acontecimiento(entrevistado por Ricardo Camargo)", *Revista de Ciencia Politica,* Vol.29, No.3, pp.815-828.

Marchart, Oliver(2006), "En el nombre del pueblo La razon populista y el sujeto de lo politico", *Cuadernos del Cendes,* Vol.23, No.62, pp.37-58.

Murillo, M. Victoria(2000), "From Populism to Neoliberalism, Labor Unions and Market Reforms in Latin America", *World Politics*, Vol.52, pp.135-174.

Roxborough, Ian(1984), "Unity and Diversity in Latin American History",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16, pp.1-26.

Smith, Peter H.(1969), *Politics and Beef in Argentina*, New York and London: Columbia University Press.

Viguera, Anibal(1993), "Populismo y Neopopulismo en America Latina", *Revista Mexicana de Sociologia*, Vol.55, No.3, pp.49-66.

Weyland, Kurt(2001), "Clarifying a contested concept", *Comparative politics,* Vol.34, No.1, pp.1-21.

논문투고일자: 2011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자: 2011년 6월 27일
게재확정일자: 2011년 6월 29일